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池 圭 鎔* · 安 圭 錫*

I. 緒 論

機械文明이 발달하고 사회적인 對人關係가 복잡화될수록 인간의 건강은 肉體의인 측면보다는 주로 精神的, 社會的인 측면의 安寧如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도산업사회 단계에 있는 현대 한국인의 질병패턴도 변화하여 衣食住 生活의 곤란으로 야기되는 後進國型으로부터 文明發達の 逆機能으로 인한 先進國型 疾病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발생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정신의학에서는 心理因子와 관련된 身體症狀, 즉 心身症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이미 心身醫學으로서 독립된 小分科를 이루고 있으며¹⁾ 인생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 야심 질투 좌절 실망등에 의해 精神的 軋轢이 생기고 이들을 이겨내려는 데서 발생하는 神經症이 精神科 外來患者의 대부분을 점하는데 이들의 근본은 역시 對人關係의 病理라 할 수 있다.²⁾

情 또는 感情이란 外部環境 그 중에서도 특히 對人關係로부터 대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것

은 生理的 表出을 隨伴하고 행동의 動機가 되며(情動) 행동이 행해지면 소실하는 급격한 것으로부터 장기간 계속되는 기분이나 情操와 같은 高等感情을 포함한다.³⁾ 한의학에서는 〈內經〉시대부터 정신과 육체의 상관성을 강조하여왔으며 〈內經〉이 고수하고 있는 心身一如의 입장은 심신의학이 성립된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 가치가 더욱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內經〉全篇에 걸쳐 感情의 變化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病理機轉等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아직은 人體理論 一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면모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通天篇〉 등에서 일부 체질과 관련하여 감정 및 행동양태를 분석하고 있던 하지만 〈內經〉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은 微小하며 오히려 〈舉痛論〉에서와 같이 개별증상이나 五臟損傷과 관련하여 논술되는 면이 많았다. 그 후의 歷代 醫家들에게서도 七情을 더 이상 확대하여 해석한 예는 없었는데 19c 말의 李濟馬에 이르러서야 七情은 四情으로 壓縮되고 다시 心慾, 體型氣像 및 臟理에 까지 연결되어 인체는 心身の 全一的인 整體를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만큼 이제마의 사상의 학설에 있어 四情의 내용은 四象醫學理論의 根幹을 이루며 그의 道德的 目標인 修養의 基礎 對象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性情論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및 정리를 제외하고는 四情概念의 淵源 및 昇降上下하는 作用機轉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內經>의 九氣病理과 구분되는 四情의 病理變化에 대한 고찰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인은 四情概念의 도출과정과 그에 대한 논리적 이유, 그리고 四情의 생리적 작용기전에 대한 상세한 解明을 試圖하고 아울러 그러한 바탕 위에서 四情의 병리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四情說의 淵源

情이란 外物에 感하여 本然의 性 또는 마음이 움직인 것을 말하는데⁴⁾ 중국 고대의 醫經은 물론 十三經에서도 四情을 논한 부분은 없으며 모두 七情으로 통칭된다. 七情에 관한 具體的인 기록은 <禮記 禮運>과 <內經>의 여러 편에 등장한다. <禮運>에는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七者 弗學而能”⁵⁾ 이라 하였는데 愛惡喜怒哀樂의 六情을 말한 <荀子>에서는 懼 대신 樂이 들어가기도 하며⁶⁾ <內經>에서는 怒喜思憂恐의 五志와 悲驚의 二者를 합하여 七情을 들고 있는데 양자 모두 七情을 感情의 通稱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인간의 모든 感情狀態를 이 7가지로써 完全히 該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렇게 通用되어 왔다. 또한 <禮記 樂記>에 “樂者 音之所由生也 其本在人心之感于物也 是故其哀

心感者 其聲噍以殺 其樂心感者 其聲嗶以緩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 其聲和以柔 六者非聲也 感于物而後動”이라 한 言及이 있는데 이는 六情을 말한 것이다. 다만 前四者は 聲音의 不調和的 變化를 수반하는 偏情인 반면 뒤의 敬心과 愛心은 偏心이 아닌 正情이므로 그 聲이 調和된 것이니 四情과 二情의 概念上에 差異를 首肯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中庸>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이라 하여 人의 感情을 喜怒哀樂 四者로서 概括하였는데 이를 始發로 하여 그후의 중국의 철학자들 및 조선의 性理哲學者들도 대개 喜怒哀樂으로서 七情을 代辯하거나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⁸⁾ 다음으로 孟子가 제시한 四端之心的 개념은 七情과 함께 후대 四端七情論의 源泉이 되었으며 이는 宋代의 性理學 및 朝鮮의 性理學에서 理氣論爭, 人心道心說, 普遍論爭등과 연계하여 哲學史의 始終을 이루었다. 朱子가 四端은 理의 發이고 七情은 氣의 發이라 하여 四端七情論과 理氣論이 결합되어 논의된 이래 특히 七情論은 조선 성리학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七情과 四情의 用法上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모두 마음에 일어나는 感情이 總名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조선의 郭侒宇(1846-1919)는 七情을 늘려 十情으로 분류하였는데 喜怒哀懼愛惡欲의 七情에 忿憂樂 三者를 加한 것이나 十情 역시 感情의 總名임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情의 분류는 七情과 六情 十情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內涵된 意味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모두 人情의 總和를 의미한다.

한편 原始儒學의 經學的 傳統을 이은 李濟馬로서는 그 自身도 <四端論>에서 引用하고 있듯이 <中庸> 經一章의 이 언급에 영향받은

바 컸을 것임을 斟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東武가 性情論을 醫學에 適用하면서 왜 전통적인 七情을 버리고 中이 〈中庸〉의 四情으로서 人의 感情을 概括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哲學體系가 四元構造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배당하기 위하여 四情說을 택하였다는 一次的인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에는 氣學的으로 合當한 理致가 있다.

主氣論의 系列에 속하는 清代의 戴震은 그의 〈孟子字義疏證〉에서 “人生而後有欲 有情 有知 三者血氣心知之自然也 給于欲者 聲色臭味也 人而有愛畏 發乎情者 喜怒哀樂也 人而有慘舒 辨于知者 美醜是非也 人而有好惡”라 하여 人間의 心作用을 세방면으로 나누고 특히 情은 喜怒哀樂의 넷으로 發出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七情中의 愛와 欲은 心欲之事이고 惡는 是非를 分辨하는 心知之事임을 밝히고 있다.⁹⁾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喜怒哀樂은 각 感情의 상태에서 氣의 昇降上下하는 運動方向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愛惡欲은 分別知 또는 순수한 心慾의 表現으로서 氣動의 方向을 정하기가 곤란하다.¹⁰⁾ 따라서 東武의 벡터적 氣概念에서는 既存의 七情概念중 喜怒哀樂만이 채택되고 愛惡欲은 제외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東武의 心慾概念과 近似하게 된다.

결국 四情의 淵源은 상술한 多方面의 內的 意味와 함께 〈中庸〉 經一章의 文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四情의 生理的 作用機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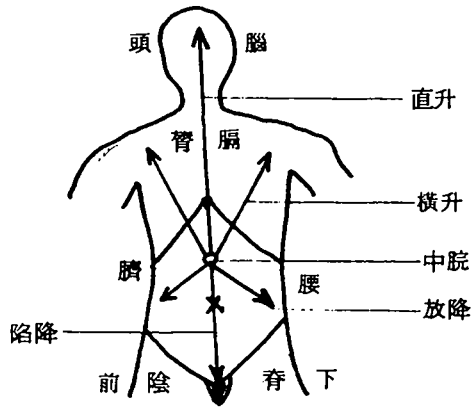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東武는 喜怒哀樂의 性情이 각기 肺脾肝腎臟局의 大小를 형성하는 所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前件은 肺脾肝腎之氣와 喜怒哀樂之氣의 氣動論的 相合作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四情

인 哀氣와 怒氣, 喜氣와 樂氣의 氣動論的 特性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哀氣直升 怒氣橫升

〈內經〉諸篇에 의하면 “悲哀太甚則 包絡絕”〈素問44〉 “悲哀則泣下”〈素問81〉 “悲哀氣并則爲泣”〈靈樞36〉이라 하고 “怒則氣逆”, “怒則氣上”〈素問39〉 “肝病者 兩脇下痛引小腹 令人善怒”〈素問22〉이라 하여 哀氣는 上動之氣이고 怒氣도 布兩脇하는 上逆 上噴之氣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東武가 “哀怒之氣 上升”이라 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東武가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한다고 서술한데 대한 氣動論理的 解明은 그 자체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아가 肺氣를 哀氣와 그리고 脾氣를 怒氣와 合致시킨 근거는 분명치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체질인의 性情과 體形氣像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氣의 上昇과 下降의 기준이 되는 中心點에 대한 基準이 既存醫學과 四象醫學에서 각기 差를 볼 수 있는데 前者에서는 體內氣運의 중심을 臍下 三寸에 위치한 下丹田으로 보는 반면 後者에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前件문맥으로 볼 때 臍上 四寸에 있는 中脘으로 잡고 있다.¹¹⁾ 人體를 中脘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위로는 兩脇肋과 肩胛에 걸쳐 廓構造를 이루고 있는 胸廓과 任脈의 延長을 따라 목부위를 거쳐 頭腦로 곧장 이어지는 直向上部가 있고 아래로는 兩腸骨 水平線까지 圓筒形으로 넓게 퍼진 大腹과 腸骨沿과 鼠蹊部位를 따라 陰囊에 까지 直下降하여 동그랗게 고이는 小腹部位가 있다. 즉 東武의 臟局이란 용어에는 각기 別위적 形상특성에 따른 別특한 氣局概念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¹²⁾ 이를 그는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蓄”이라 표현하였는데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애가와 노기를 비교 분석해 보면 唯心的인 면이 다소 있지만 ‘哀’는 어떤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느끼는 他起的 슬픔의 감정이라면 ‘怒’는 어떤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느끼는 自起的 憤怒의 感情이다. 따라서 東武의 언급처럼 哀氣는 중심으로부터 멀리 흩어져(遠散) 頭腦까지 直升하는 것이라면 怒氣는 멀리 가지 못하고 胸廓에 遮斷되어 뒷살방향으로 퍼져올라가(橫升) 크게 감싸는 모양(宏抱)이 된다.¹³⁾ 이러한 氣動樣態는 肺脾의 氣局概念 및 呼氣作用과 納氣作用이 相合함으로써 형성된다.¹⁴⁾

(2) 喜氣放降 樂氣陷降

다음으로 喜氣와 樂氣를 분석해 보면 <舉痛論>에서: “喜則氣緩” “喜則氣和志達 營衛通利”라 하듯 喜란 어떤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운 느낌을 느껴 편안하고 느긋해진 기쁨의 감정이라면 樂이란 <內經>에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어떤 상황속에 능동적으로 빠져들어 즐기는 감정이다. 따라서 東武의 설명처럼 喜氣는 중심으로부터 下方으로 緩慢하고 넓게 퍼져 臍腹으로 放降하는 것이라면 樂氣는 깊이 耽溺하여 직하방 前陰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陷降) 기운이다. 이러한 氣動樣態는 肝腎의 氣局概念

및 肝의 吸氣作用과 腎의 出氣作用이 相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아울러 四體質人의 체형기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태양인은 衰性이 많은데 肺大하여 腦추의 기세가 성장하므로 衰氣는 두뇌로 直升하게 된다. 왜냐하면 氣의 흐름은 좁은 곳을 지나 넓은 곳에서 모이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즉 태양인은 흉격보다 두뇌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기 때문에 陽氣인 衰氣는 中脘으로부터 胸膈을 지나 곧바로 두뇌로 상승하는 것이다. 반대로 怒性이 많은 少陽人은 흉격이 두뇌보다 盛壯하기 때문에 怒氣의 흐름은 흉격에서 멈추고 더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또한 喜性이 많은 太陰人은 臍腹이 盛壯하므로 喜氣의 흐름은 膈에서 멈추고 더이상 하강하지 않으며 樂性이 많은 少陰人은 제복보다 상대적으로 小腹이 성장하므로 樂氣는 臍를 지나 小腹으로 直下降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한 四焦의 盛壯은 東武가 前後四海의 概念을 써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의 주제와 상이하므로 생략한다.

그러나 설사 哀怒之氣와 喜樂之氣를 위와 같이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그 概念과 作用이 截然히 구분될 수는 없으며 哀氣와 怒氣는 공히 陽氣로써 相成하고 喜氣와 樂氣는 공히 陰氣로써 相資한다. 나아가 이러한 四情의 생리기전이 四臟의 손상을 일으키고 臟局長短을 형성하는 主因이 된다.

3. 四情의 病理機制

東武가 기술한 四情의 病理作用을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哀傷腎 怒傷肝 喜傷脾 樂傷肺라 한 個別損傷이고 둘째는 哀怒之氣逆動則肝腎傷 喜樂之氣逆動則脾

肺傷이라 한 類別損傷이다. 여기서 둘째의 類別損傷은 陽升之氣가 過多하여 上并하면 下焦가 虛해져서 肝腎이 傷하고 陰降之氣가 과다하여 下并하면 上焦가 虛해져서 肺脾가 傷한다는 기본적인 陰陽病理이므로 당연한 논리귀결이다.¹⁵⁾ 이를 더욱 상세히 나누면 각 臟腑에 따른 개별손상의 병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제 기국에 따른 陰陽論의 氣動論理를 통하여 살펴보면 ;

哀氣는 上焦肺에 并하여 陽盛하므로 中上焦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음양적 대응관계에 있는 下焦腎精이 傷하게 되며 怒氣는 中上焦脾에 并하여 陽盛하므로 中上焦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대응관계에 있는 中下焦肝血이 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喜氣와 樂氣는 각기 中下焦肝과 下焦腎에 并하여 陰盛하므로 中下焦를 중심으로 대응관계에 있는 中上焦脾氣와 上焦肺神을 傷한다.

이를 다시 각 체질별로 나누어 氣動論理에 따라 詳看하면 太陽人은 항상 哀怒之氣가 過多하여 병이 되는데 太陽人의 臟局은 肺가 大하고 肝이 小하므로 哀氣는 直升하여도 大한 肺局에는 수용할 여유가 있지만 怒氣는 中上焦에서 수용할 여유가 없으므로 太陽人에게서 가장 작은 臟局인 肝이 상하게 된다. 少陽人도 항상 哀怒之氣가 過多하여 병이 되는데 少陽人의 臟局은 脾가 大하고 腎이 小하므로 怒氣는 橫升하여도 大한 脾局에는 수용할 여유가 있으나 哀氣는 上焦에 수용할 여유가 없으므로 少陽人에게서 가장 작은 臟局인 腎이 상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太陰人은 항상 喜樂之氣가 過多하여 병이 되는데 太陰人의 臟局은 肝大肺小하므로 肝局에서 喜氣를 受容할 여유는 있으나 樂氣를 下焦에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작은 臟局인 肺가 상하는 것이며 소음인의 장국은 腎大脾小하므로 腎局에서 樂氣

를 수용할 여유는 있으나 肝에서 喜氣를 수용할 여유는 없으므로 가장 작은 臟局인 脾가 상하게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個別損傷은 類別損傷의 深化이며 前者는 後者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四情의 病理作用을 고찰함에는 상기한 個別損傷과 類別損傷의 논리 및 상호간의 傳變特徵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四情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Ⅲ. 總 括

본론에서 기술한 四情의 淵源과 作用機轉 및 病理機制에 대한 내용을 總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四情概念의 淵源에 대해서 表面的으로는 儒學者로 출발한 東武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中庸〉 經一章에서의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이라 한 문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戴震의 분석처럼 칠정중 愛와 欲은 心欲之事이고 惡은 心知之事로서 본래의 情에 해당하는 내용은 喜怒哀樂의 넷이며 실제로 氣動方向을 定하기가 어려우므로 東武의 氣概念에 걸맞지 않기 때문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四情의 작용기전에서 四情의 생리적 작용은 情自體의 氣動方向 및 氣動樣態와 人體構造中 四部位에 대한 氣局論的 특성 및 肺脾肝腎의 呼吸出納機能이 相合하여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며 四體質에 따른 四情의 多少로서 설명하면 四情의 작용기전은 〈臟腑論〉의 핵심개념인 四海論이 적용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四情의 병리기제에 대해서는 個別損傷과 類別損傷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양자 모두 陰陽病理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자는 후자

에 포함되는 관계임을 밝혔다.

여기서 간간히 四情과 체질별 臟局大小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지만 장국을 형성하는데는 東武가 〈臟腑論〉에서 기술한 것처럼 水穀이 들어와서 나가가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작용하고 있는 溫熱涼寒 四氣의 영향을看過해서는 안된다. 東武는 특히 前後四海의 개념을 〈臟腑論〉에서 다루고 있는데 즉 神氣血精, 津膏油液, 賦膜血精等 본질적인 氣游動論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특한 臟局概念인 薰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四端論〉에서 心慾에 의한 四情의 작용으로 氣動論을 전개했던 것과 상대를 이루는데 즉 그의 氣動理論은 정신적인 氣와 물질적인 氣의 相互作用 및 統合으로 구성되며 나아가 心物一致, 道器一致論까지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四情에 대한 諸主題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水穀之氣의 昇降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四情의 자체적인 昇降游動機轉을 파악하는데 主眼이 있었으므로 水穀之氣問題는 排除하였다.

그렇지만 東武의 사상의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性命論〉〈四端論〉〈臟腑論〉전체에 골고루 스며있는 理氣 性情 性命 知行 陰陽등의 모든 상대적 屬性들을 一身에 완전하게 具現하여 통합하고 그 조화를 위해 역설했던 性理學的 修養論에 유의해야함을 發見하였다.

IV. 結 論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機轉과 病理機制를 알아보기 위하여 四情의 淵源 및 四情과 臟理와의 관계를 연구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四情의 연원은 〈中庸〉으로 遡及할 수 있으며 東武의 氣動論의 개념에서 欲과 知의 속성인 愛欲과 惡는 四情에서 제외되었다.

2. 四情의 작용기전은 肺脾肝腎의 고유한 臟局概念과 呼吸出納概念 및 四情의 속성이 상합하여 일어난다.

3. 四情의 作用을 氣動論理로써 분석하면 前後四海論으로 집약되어 있다.

4. 四情의 병리기제는 개별손상과 유별손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별손상은 陽氣并上, 陰氣并下에 기인하며 개별손상은 각 臟局別로 陰陽相對論的 損傷에 의해 또는 각 체질별로 陰氣나 陽氣를 수용할 氣局의 餘裕가 부족한데서 발생한다.

5. 四情論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水穀之氣의 변화도 함께 다루어야 하며 이 兩者 사이에는 精神과 物質의 統一的 思考가 胚胎되어 있다.

V. 後 註

1. 橫義完：心身症，杏林出版，서울，1985，p.17.
2. 黃義完：金知赫：東醫精神科學，現代醫學書籍社，서울，1985，p.531.
3. 上揭書 p.73.
4. 이것은 “性發爲情”이라든가 〈禮記〉의 “感于物而後動” 및 韓愈 〈原性〉의 “情也者 接于物而生也”와 朱子 〈朱子語類 卷5〉의 “性者心之動”등을 결합하여 해석한 것이다.
5. 周禮 儀禮 禮記，岳麓書社，長沙，p.371.
6. 〈荀子 天論〉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
7. 이는 후대 성리학의 논의, 특히 조선 性理學的 人心道心說 論爭에서 분명해지겠지만

主理的 立場에서는 人心은 곧 人欲이며 七情에 해당하고 道心은 仁義禮智의 四端이며 善一邊을 가리킨다. 따라서 <禮記 樂記> 문장속에서는 모두 六情이지만 짐짓 東武가 영향을 받았을 후세적 개념에서는 二情은 他 사정과 구분되는 四端之善心인 것이다. 왜냐하면 東武에 있어서의 四端概念은 道心으로서의 仁義禮智가 아니라 바로 그 仁義禮智를 버리고 性情과 體質이 四偏으로 치우쳐 中節을 잃은 人欲의 四端이기 때문이다.(棄禮而放縱, 棄義而偷逸, 棄智而飾私……등)

8. 尹絲淳: 韓國儒學論究, 玄岩社, 서울, 1980. pp.86-87.
9. 中國哲學主要範疇概念簡釋: 浙江人民, 浙江, 1988, pp.181-182.
10. <素問 舉痛論>의 九氣病理 概念이 적용된다.
11. 여격之間이 中上焦이고 腰臍之間이 中下焦이므로 중간부위는 中脘이 된다.
12. 이런 그의 氣局概念의 淵源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命學이나 相學 風水 地理등의 雜學보다는 栗谷의 理通氣局說이 직접적 뿌리가 아닌가 한다.

13. 소극적이고 他起的이므로 氣의 密集도가 낮아서 求心力이 비교적 약하고 적극적이고 自起的이므로 氣의 密集도가 높아서 求心力이 크다고 본 것이다.
14. <四象醫學草本卷> 第一卷 第五統 “呼則遠 東則大 緩則廣 吸則深 …… 喜則直 怒則栗 喜則寬 樂則溫” 金九翼先生 手抄本中
15. 이것은 <素問 調經論>에 나오는 氣并理論과 같은 脈絡이다.

VI. 參 考 文 獻

1. 洪元植 校: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
2.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
3. 中國哲學史研究編輯部: 中國哲學史主要範疇概念簡釋, 浙江人民, 1988.
4. 張岱年 著: 中國古典哲學概念範疇要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5. 黃義完, 金知赫: 東醫精神科學, 現대의 학서적사, 서울, 1987.
6. 黃義完: 心身症, 행림출판, 서울, 1985.